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선임연구위원	성 명	김영옥
		본원		연구위원		조선주
		본원		연구위원		마경희
출장기간	- 7/3- 7/7, - 7/8- 7/11		출장지	- 스페인 마드리드 -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세비아		
출장목적	① 지방정부별로 발전 추이 및 진행상황이 다양한 스페인 사례의 심층연구: 일찍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도된 스페인 북쪽의 바스크 지방과 최근 활발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스페인 남쪽의 안달루시아 지방의 비교분석(관련기관 방문, 전문가 면담, 라운드테이블 개최) ②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③ 세계여성학대회 참가(2008.7.1-7.15, 스페인 마드리드) 및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연구논문 발표					
경비부담	본원 부담 (기본연구사업비, 약 20,000천원)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방문기관 및 면담자			주요활동 및 협의사항			
스페인 연방정부 재정부 산하 재정연구소 Dr. Maria Pazos Moran (연구부서 국장, 성인지 예산 전문가)			- 스페인의 특성 및 성인지 예산 활동 - 최근의 진전 및 유효한 전략 방안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 참가 마드리드시 컴플루텐스대학			- Semiplenary session 참가 - Regular session에서 논문 발표: "Gender building initiatives in South Kore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등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성인지 예산 활동 Dr. Maria Pazos Moran Mrs. Priya Alyarez(Director, Infopolis 2000, S.L)			- 바스크 정부 부처별 성인지 예산 시범분석 사례 - 바스크 경험의 한계와 교훈 - 바스크의 경험의 의의와 이후 진전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정부와 라운드테이블 -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 경제재정부 차관 Mrs. Carmen Martinez 접견 - 중간에 경제재정부 장관 겸 부지사 Mr. Jose Antonio Grinan Martinez 접견			발제1: Mrs. Pilar Lobato (경제재정부 Advisor to the Vice-President) 발제2: Mr. B. A. Diaz, Mrs. Petrisia, Mr. Elvica (정책평가·진단국) 발제3: Dr. Antonio Lozano Pena (General Director of the Budgeting Branch) 발제4: Mr. Juan A. H. Rodriguez (통계연구소 인구사회통계부장) 발제5: Dr. Young-Ock Kim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현황)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08. 8. 4.

출 장 복 명 자 : 김 영 옥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스페인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조사
(Gender Budgeting in Spain)

2008. 8. 4.

보고자 : 김 영 옥
GM연구본부 성인지예산센터 선임연구위원

1. 회의명 : 스페인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조사

2. 회의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 2010년 예산안부터 적용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서, 선행사례의 수집 및 분석은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자 방법임. 본 방문은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스페인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① 지방정부별로 발전 추이 및 진행상황이 다양한 스페인 사례의 심층연구: 일찍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도된 스페인 북쪽의 바스크 지방과 최근 활발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스페인 남쪽의 안달루시아 지방의 비교분석
 - 관련기관 방문
 - 전문가 면담
 - 라운드테이블 개최
- ②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 ③ 세계여성학대회 참가(2008.7.1-7.15, 스페인 마드리드) 및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연구논문 발표

3. 참가자 규모: 총 3명

본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조선주 연구위원, 마경희 연구위원

4. 회의일정

날짜	일정
7/3(목)	인천 출국(13:45) --> 스페인 마드리드 도착(20:10)
7/4(금)	스페인 재정부 산하 재정연구소 방문 연구부서 국장이자 성인지 예산 전문가인 Dr. Maria Pazos Moran 인터뷰
7/5(토)	제11차 세계 여성학 대회 참석, 마드리드시 컴플런스 대학 - 성주류화 전문가(영국의 실비아 월비, 네덜란드 미야케 벌루 교수 등)의 발제세션에 참가후 면담 -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경험 및 과제” 발표 (김영옥)
7/6(일)	연구진 회의 (스페인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분석 및 제도화사례 검토)
7/7(월)	“바스크 지방의 성인지 예산 추이 및 평가”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 스페인측에서는 Mrs. Priya Alyarez(Director, Infopolis 2000, S.L), Dr. Maria Pazos Moran 등 참석
7/8(화)	안달루시아 지방의 성인지 예산 활동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개최 - 경제재정부 청사, Sevilla, Espana - 시간: 9:00 -15:00 - 장관과 차관 접견 - 발제1: Mrs. Pilar Lobato (재정경제부 Advisor to the Vice-President) - 발제2: Dr. Antonio Lozano (General Director of the Budgeting Branch) - 발제3: Mr. B.A. Diaz(정책평가·진단국) - 발제4: Mr. Juan A. H. Rodriguez(통계국) - 발제5: Young-Ock Kim(한국의 제도화 현황)
7/9(수)	세비야 → 마드리드로 이동
7/10(목)	출국 (22:10)
7/11(금)	인천 도착(17:20)

5. 주요내용

가. 스페인 연방정부 재정부 산하 재정연구소 방문

면담 날짜: 2008년 7월 4일 금요일
면담 시간: 오후 2시 - 5시
면담 장소: 마드리드시 재정연구소
면담자: Dr. Maria Pazos Moran (연구부서 국장, 성인지 예산 전문가)

▶ 스페인의 특수성

유럽에서 스페인은 예외적임. 1936년부터 1979년까지의 독재정권하에 (그리고 그전에 시민전쟁) 있던 스페인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회적 발전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했음. 지난 20년간 민주주의의 회복, 유럽연합으로의 합류,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발전은 급격하게 사회전망을 변화시킴. 이러한 모든 변화, 특히 엄청난 규모의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현상은 몇몇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많은 현저한 차이들을 가져옴 .

스페인 은 성역할에 있어서 여전히 보수적인 국가, 사회적 지출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주

낮고, 또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아직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에 성폭력법, 성평등법 등 정부와 의회에서 유사하게, 성평등을 추구하는 몇몇 뚜렷한 조치들이 채택되어왔음.

▶ 스페인의 성인지 예산 활동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공공정책개혁의 방향이어야만 하는가, 성별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무슨 도구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성 주류화를 실행시키는가에 대한 논쟁과 연구가 증가해 옴.

성인지 예산은 젠더당국과 여성운동기구들의 논제이고, 일련의 경험들이 서로 다른 접근과 구체화 정도를 가지고 일부 지역 및 정부수준에서 일어났음. 이러한 경험의 일반적인 목적은 성인지적 관점을 공공예산에 도입하기 위함이지만 이 일반적 목표의 해석에 있어서는 큰 다양성이 존재. 바스크 지역과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험은 좋은 대조를 이루며 비교분석의 가치가 큼.

▶ 최근의 진전

2007년에 스페인은 law of effective gender equality를 통과시켰다. 주된 내용은 모든 통계는 성별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스크 지역의 사례에서 통계 부족이 항상 문제였음을 기억한다. 인구 통계, 고용 통계 등 모든 종류의 통계가 성별 분리되어야 한다. 이는 성 평등을 달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03년에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사업계획안은 성별영향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한줄로 시작하지만, 다음에는 두 페이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세 페이지가 될 것이다.

올해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6월 말에 3개의 여성단체가 정부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방기’에 대해 고소했다. 법원은 원고승소의 판정을 내리면서 정부에게 분석하라는 명령을 했다. 또한 성 평등부서는 올 2월부터 high level이 되어 New ministry of Equality가 되었다. 이 위상이 높아진 성 평등 부서가 재정부를 압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성인지 예산을 위해서는 재정부와 최고 의사결정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스페인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 기타 논의

이후 논의시간에 마리아 파조스 박사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공무원 교육훈련 경험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면서 훈련참가 부처의 구성, 훈련참가의 자발성, 성비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다.

GB는 on going process이며 "learning progress"임을 강조하였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일을 해보고, 더 참여할수록 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이것은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성인지 예산활동은 예산을 분석과 변화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예산은 priority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돈이 진짜로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정부의 사업이 空約인지의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분석결

과, 많은 프로그램이 성 평등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 불평등 프로그램으로 판명된다.

또한 최근 EU 국가내 변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였다. EU내 지방정부 차원이건 중앙정부 차원이건 성인지 예산을 시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EU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재정연구소는 gender and fiscal study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성 평등과 관련된 예산의 특별한 측면들을 연구하고 있다. 예컨대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정부 지출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스페인 재정연구소 마리아 파조스 박사 면담

나.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 참가

참가 일자: 세계여성학대회는 2008년 7월 3일에서 8일까지 총6일에 걸쳐 열렸으나 출장 일정 때문에 저자의 논문을 발표하는 7월 5일(토)만 참가하여 다음의 semiplenary 세션을 듣고 오후에 논문을 발표하였음.

장소: 마드리드시 컴플루텐스대학내 단과대학들

▶ Semiplenary session: "Women's Social Recognition and Economy"

Marilyn Waring "A Women's Reckoning"

Carmen Sarasua "A new kind of impoverishment of women and the urgent need for a

new policy of redistribution"

Lourdes Beneria "Globalization and women's labor: How to evaluate its effects"

▶ Semiplenary session: "Political and Legal Action"

Sylvia Walby "Varieties of gender regimes : Globalization, complexity and contested modernities"

Mieke Verloo "Gender equality policies at the crossroads : New and old politics of privilege and exclusion"

▶ Regular session: "Political and Legal Action"

Young-Ock Kim & Ma, Kyoung Hee "Gender building initiatives in South Kore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Regular session: "Economics"

Sun-joo Cho & Young-Ock Kim "Corporate philanthropy in Gender Perspective"



<그림>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 참가등록

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성인지 예산 활동

면담 날짜: 2008년 7월 4일 금요일
면담 시간: 오후 2시 - 5시
면담 장소: 마드리드시 재정연구소
면담자: Dr. Maria Pazos Moran (연구부서 국장, 성인지 예산 전문가)
Mrs. Priya Alyarez(Director, Infopolis 2000, S.L)¹⁾

▶ 초기 경험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는) 바스크 지방은 스페인에서 가장 산업화되고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민주주의 이후로) 항상 국가주의 정당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다(절대적인 다수로 혹은 다른 정당과의 연합으로).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매우 독립적이다. 바스크의 경우는 더하다. 바스크는 매우 nationalist이다. 바스크 지역의 여성 기관은 성인지 예산을 해보고 싶었지만, 이건 너무나 새로운 것이어서 적용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세계에서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연구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호주로부터 여성을 한 명을 초청했다. 이 때 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이에 대해서 불평했었다. "우리는 돈이 없다." 그 때 교수가 대답했던 말은 "이것은 돈이랑 상관없다. 같은 양의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지의 문제이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경우 정부가 분석주체가 되어 내무부, 산업·무역·관광, 건설교통부, 보건부, 문화부, 환경부의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분석을 실시하였음. 이 경험은 1999년 바스크여성연구소(the Basque Institute for Women, 바스크어로 Emakunde, <http://www.emakunde.es>)의 주도로 시작. 그들은 첫째로 아주 흥미로운 디지털도서관을 만들어 냈(<http://ppcg.infopolis.es/default.cfm>): Smart Digital Library (Public Gender Budgets). 그들은 여러 세미나를 개최했음; 2000년에는 론다 샤프(Ronda Sharp)와 함께, 2001년에는 다이앤 엘슨(Diane Elson)과 함께, 2002년에는 로나 피츠게랄드(Rona Fitzgerald: 피츠게랄드는 이전에 Irish와 Scottish 정부와 함께 일했었음)와 함께 이루어짐.

2001년에 지역정부의 다른 부서들의 참여와 로나 피츠게랄드(Rona Fitzgerald)에 주도된 에마쿰데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으로 워킹그룹이 만들어짐. 2002년 지역정부의 6개부서는 각 부서가 선 발한 한, 두개의 사업예산에 실험적 경험을 실시하였고 또한 젠더관점으로 이것들을 평가. 사람들은 개인별 수혜자를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프로그램으로써 충분히 성별분리가 된 것들을 요구받음.

그들이 답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성 평등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것이었음: 그것은 성 평등에 영향을 주는가? 어떤 방식으로? 평등성은 향상되었는가? (혹은 향상되도록 노력되는가?) 악화되는가? 혹은 그것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가?

2003년 핸드북 발간: 젠더 영향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젠더 가이드: Dra.

1) 프리자는 Infopolis(성 평등을 위해서 일하는 민간 컨설팅 기관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서비스를 제공함) 공동대표로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바스크 지역의 성인지 예산활동을 주도한 중심인물중 하나이다.

Alisa Mackay와 Dra. Rona Fitzgerald의 이전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고, 이는 Emakunde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급됨.

▶ 바스크 지역정부 주요 부처별 성인지 예산 시범분석 사례

6개 부처가 시범 사업을 했는데, 부서당 최소한 2명이 참여했는데, 한 명은 예산, 다른 사람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적당한 규모여야 하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문제는 젠더 전문가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었고, 예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작업을 지루하고 의미없이 여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즐겁게 작업을 하고 이 작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추가적 노력을 경주했다.

○ Department of Culture and Sports:

- 프로그램: 스포츠에 대한 정부 보조금
- 주된 결론: 불충분한 데이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더 적은 여성 수혜자. 남성보다 더 적게 여성에게 돌아가는 돈.
- 제안점: 여성 스포츠에 더 많은 보조금 할당, 여성들이 더 많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증진하는 홍보 활동, 미디어에서 여성 스포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기.

○ Department of Industry, Commerce and Tourism:

- 프로그램: 연구 개발 (신 기술)
- 주된 결론: 데이터의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더 적은 여성 직원 수, 남성들의 봉급이 여성들의 봉급보다 18% 높음, 이 부문에서 여성 Ph.D는 22%에 불과.
- 제안점: 보다 많고, 자세한 데이터.

○ Department of Interior Security:

- 프로그램: 1) 긴급 구호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기관에 대한 보조금 2) 공영 방송을 통한 긴급 상황 하에서의 안전과 자기 보호에 관한 광고 확산.
- 주된 결론: 이 프로그램들은 데이터가 가용하기에 채택되었음. (비록 불충분하고, 여성 참여의 진화과정을 볼 법한 시간 상의 전개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는 성 평등이라는 면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음.
- 제안점: 젠더 관점에 대한 더 많은 훈련, 다음 기회에 연관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젠더 전문가에 의한 기술 지원.

○ Department of Environment:

-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훈련을 위한 보조금.
- 주된 결론: 데이터의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남성들이 수혜자였음 (교사나 학생).
- 제안점: 젠더 관점에 대한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에 성별 변수를 도입.

▶ 바스크 경험의 한계와 교훈

시범 경험의 결과는 2002년의 또 다른 세미나에서 성인지 예산 안내서와 함께 발표되었고 참가

한 유럽연합의 전문가들은 그들의 경험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이후 더 이상의 진전 및 일반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 이유는 이것이 정부의 최고수준에서 취해지고 지원되어진 것이 아니라 젠더당국에 의해 촉진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모든 과정에서 재정부의 소관 밖에 있었음. 또한 예산활동의 부분으로서 여겨지지 않았다. --> 바스크 지역은 시범 사업 후에, 남녀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된 성과가 있었다. 이 작업은 계속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분석작업이 복잡하고,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속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했다. 문제는 정치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인지 예산은 너무 복잡해 보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할 정치적 의지가 없었다. 한국에게 권하고 싶은 전략은 '성인지 예산'을 가급적 쉽게 만들라는 것이다.

또한 시범분석의 참석자는 공식적으로는 '여성연구소의 경험'에 참여하도록 기획되어 있었으나, 이런 일은 부서의 정규 업무로 여겨지지 않았다. 원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식의 선택 사항이었다. 이는 본 업무가 아닌 부차적 업무였고 결과적으로 각 부서내의 높은 단계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

성 평등에 대해 어떤 훈련도 제공되지 않았고 가능한 업무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성 평등 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를 갖고 있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 수집된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고 성별로 분리되지도 않았다. -->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 문제만이 아니라, 성평등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성인지적인 사고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성 차별은 숨겨져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 바스크의 경험의 의의와 이후 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은 스페인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가용자료를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기여했다. 스페인에서의 첫 번째 경험으로서 이는 높은 가치가 있고,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또한 미래에 이것을 직면하는데 있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주었다. 게다가 이런 과정은 일부 요구(자료, 지표, 훈련 등)에 대한 공공행정의 첫 번째 반응이었고 시험분석은 이런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었다.

바스크 지역의 성인지 예산 시범사업은 종료되었지만,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업데이트를 했다. 최근들어 제도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스크 지역내 “비스케이” provincial county는 2009년부터 성인지 예산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이 지역은 안달루시아를 모범사례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성별 자료의 구축이 정보 공개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여성연구소등이 정부가 이 문제를 잘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림>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성인지 예산활동 논의후

라.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의 성인지 예산 활동

라운드테이블 개최: 2008년 7월 4일 화요일

시간: 오전 9시 - 오후 3시

장소: 안달루시아 지역 세비야 주정부 청사

발제1: Mrs. Pilar Lobato (재정경제부 Advisor to the Vice-President)

발제2: Mr. B.A. Diaz, Mrs. Petrisia, Mr. Elvica (정책평가·진단국)

발제3: Dr. Antonio Lozano Pena (General Director of the Budgeting Branch)

발제4: Mr. Juan A. H. Rodriguez (통계연구소 인구사회통계부장)

발제5: Dr. Young-Ock Kim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현황)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 경제재정부 차관 Mrs. Carmen Martinez 접견

중간에 경제재정부 장관 겸 부지사 Mr. Jose Antonio Grinan Martinez 접견

▶ 안달루시아 지역의 성인지 예산 분석 사업

안달루시아(스페인의 남쪽지역)는 여러 해 동안 안정적인 다수를 가진 사민당에 의해 지배되어 왔음. 이 지역은 스페인에서 가장 낮은 공식적인 여성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35%, 스페인 전체 여성고용률 41%, 바스크 지방 45%, 마드리드 50%), 가장 산업화가 덜 진행되었으며 가장 덜 개발된 지역 중 하나. 지난 몇 년간 산업화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방 정부는 연구개발

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함께 지역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빈곤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유럽구조자금의 실질적인 원조로). 사회정의의 위한 요구로서만 아니라 성 평등이 생산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안달루시아 정부는 성평등에 중요성을 둬.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돌봄의 영역에서 여성의 지나친 전문화는 비효율적이며 지역의 완벽한 개발의 방해물 중 하나임. 이 정부 구성의 50%는 여성임.

2006년 안달루시아 정부는 성인지 예산 문서를 만들어, 모든 인적 자료를 성별분리하도록 하고, 모든 부처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성별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했음.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계획은 재정장관의 선도로써 재정부에서 시작되었고 직접적으로 차관(여성)에 의해서 이끌어짐. 2003년에서 2005년 동안 의회는 법에 따라 다음의 중요한 결정을 통과시킴:

○ Law 8/2000 + Law 4/2007: 통계 계획 2002-2006 + 2007-2010

- 사람과 관련된 모든 지표는 성별 분리 되어야 함.
-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평가하는 새로운 설문과 연구

○ Law 18/2003과 Law 3/2004:

-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은 성 평등 영향 평가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예산의 성별 영향 평가를 위한 위원회. 이 위원회는 1) 재정부에 예속되어 있고, 2) 의장은 재정부 차관이며 서기는 예산 국장임. 3) 구성은: 각 부서(공식적으로 높은 단계에서 임명된)에서 두 명(남성 한 명, 여성 한 명), 여성연구소의 대표 두 명, 통계사무소에서 두 명. 모든 구성원은 고위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가짐. 이것이 의도한 바는 이들이 각 부서와 예산사무소 뿐만 아니라 부서의 기획파트를 대표하는 것임.
- 위원회는 이미 3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세 번째 성별영향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과정의 목표는 예산 자체의 변화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주요 활동은 예산에 새로운 지표를 통합시키는 것과 모든 지표를 성별로 분리하는 것.
- 지금 그들은 목표와 각 사업의 실행을 수정하고 있으며 각 목표를 재 정의하기 위해서 성별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임(이것은 G+ 운영이라 부른다).
- 또한 지금 목표는 성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을 포함해, 예산의 거시경제적 방향을 연구하는 것.

▶ 안달루시아의 Steps in Reality

- 2004: 재정부의 2004년 전략 계획 ‘인식 수준을 높이고, 전체 예산을 성 평등에 절충시키기 (To increase awareness and to compromise the whole budget with gender equality)’
- 2004: 정부 내각에서의 남녀 수의 동등
- 2004: 예산의 성별 영향 평가 위원회가 재정부, 평등 복지부, 여성 단체(Women's Institute), 통계청과 함께 일을 시작.
- 2005: 이 위원회가 모든 정부 부처로 확장됨 (현재 35명-동등한 남녀 수)
- 2005년 말: 첫 성별 영향 보고서 출간
- 2007년 이래로: 젠더 영향 보고서는 예산 공식 문건 중 하나임.

▶ 안달루시아 G+ Project:

○성 평등과의 연관성에 따라 모든 예산 프로그램의 identification (합의에 의한) -> 목적, actions, 지표, 예산 할당 개혁(reformation)

○G+ 프로그램 분류화 (G+ Classification of Programs)

- 1단계: Identification: 합의 + 참여

1) 자체 평가: 모든 프로그램들은 평가되어야 함. 2) 설문: 모든 프로그램은 다른 다른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함.(all programs must evaluate the others) 3) Think-Tank: 전문가 집단이 이 과정을 감독함. 4) 인식(awareness): 공무원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보를 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계획

- 2단계: 평가라는 면에서의 진보(Progress): 목적과 행동(actions)

1) 진단: 현실을 알기. 2) G+ 를 계획하기: 전략적 실행적 목적+ 평등에 우호적인 행동을 정의하기. 3) 지표의 정의: 성별 분리 이상의 어떤 것.

- 3단계: 성과 분석: 젠더 감사(auditory on gender)

▶ 안달루시아의 성공 요인

○ 여성 위원회가 아닌 지방정부의 시도로 이루어짐.

○ 중요한 고위층의 여성들이 존재: 부처장과 재정차관.

○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보건 자문가가 존재.

○ 재정부가 참여자 중 하나였고, 재정부 내에서도 합의가 존재했음. 따라서 이 경험이 정부 차원으로 추진될 수 있었음.

○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성별 영향 평가 위원회. 의장은 재정부 차관. 중요한 부처 사람들이 모두 참여. 모든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

▶ Mrs. Pilar Lobato (경제재무부 차관정책보좌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지 대략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광범위한 프로젝트이다. 안달루시아는 전체 17개 autonomous community 중 하나이고, 8개의 provinces로 되어 있습니다.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의 17개 지방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달루시아는 가장 큰 지역이고, 남쪽 지역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아프리카의 남쪽과 인접해 있습니다.

스페인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일인당 GDP는 78% 정도 밖에는 되지 않고 고용률도 스페인 평균보다 낮습니다. 우리의 고용률은 스페인 평균보다 낮은 반면, 실업률은 가장 높다.

안달루시아 지방 정부는 13개의 부처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부처인 the regional ministry for economy and treasury는 안달루시아 정부의 재정 및 경제적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gender balanced government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수의 남녀 representatives, ministers 를 가지고 있습니다. Regional ministry of economy and treasury는 안달루시아 8개 provinces 에 delegation을 보유하고 있다.

젠더는 단순히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가 더 역동적이고 생산적이며, 더 높은 수준의 복지와 사회 내의 단결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평등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통합에도 매우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EU 25국에서 스페인의 일인당 GDP가 77% 수준입니다. 만일 우리가 같은 생산성 구조, EU 25와 같은 생산성 역동성을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산 모델을 바꾸고, 동일한 요소들과 동일한 생산 구조를 우리 지역에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수렴 정도는 91%까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100%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만일 우리가 EU 25 평균과 같은 고용률을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산 모델을 바꿀 필요가 없고, EU와 비슷한 고용률에 닿음으로 수렴이 가능합니다(노동생산성이 금융 서비스와 산업 부문에서 높고, 케이터링, 레스토랑, 호텔 비즈니스에서는 낮는데, 여성은 저생산성 부문에 몰려있다. 따라서 직종 분포의 격차가 줄면 100%에 접근할 것임). 우리는 global gender equality ratio를 사용했고, global competitive index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 바는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는 더욱 평등적이고, 더 적은 gender gap을 지닌 국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경쟁력 부문에서 최고에 있는 국가들은 가장 적극적인 성 평등 정책을 지닌 국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 평등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인간 개발 보고서에서의 UN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World Economic Forum도 평등이 없다면, 국가 경쟁력은 줄어들고, 이는 국가가 발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요한 요소는 고용인데요. 왜 그런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EU 25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남성들은 비슷한 실업률과 고용률을 가지는데 반해서, 여성들의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당히 높고 낮다. 낮은 비활동률의 주 이유는 가사때문이다. 여성들 중 52%가 비활동 인구이며, 노동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 60%가 실업 상태입니다. 남성들을 보면 오직 31%의 남자들만이 노동 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활동 남성들 중 대부분은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남성들의 비활동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성들의 비활동률인 52%는 남성들의 비활동률인 31%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flexibility margin이 있고, 이 차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활동 인구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비활동 여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집에 있습니다. 이들은 전업 주부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연금 권리도 없고, 부를 창출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잠재력 개발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며, 특별히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훈련과 교육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출산율이 고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들이 노동 시장에 있을 때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더 아이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활동률이 낮으면, 아이들의 수도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일을 시작하면, 아이들을 가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들이 일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립했을 때, 아이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을 경제적 평등과 독립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복지 시스템을 지속가능 하게 하여 우리의 낮은 출산률과 노령화되는 문제에 대처하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안전과 사회 복지 시스템은 여성들이 일함으로 기여하는 공헌 없이는, 연금과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활동율은 남성들보다 22% 낮습니다. 고용률은 남성들보다 24% 낮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활동적인 경향이 있고, 더 높은 고용률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달루시아에는 6년 전부터, 더 높은 여성들의 교육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성들보다 6000명이나 더 많은 여성 대학 졸업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매우 좋은 상황인 우리가 고용률과 활동율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이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국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여성들이 그들이 교육 받은 분야에서 캐리어를 쌓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잠재력을 허비하고 있고, 역사와 미래 세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보다 평등한 사회에서 우리는 더 높은 복지와 웰빙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떻게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이는 주류화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Buenaventura가 이러한 예산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임신 휴가나 모성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또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이유로 휴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들은 여성을 고용하는 것에 제한을 둡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일, 고용으로부터 떠나거나 휴가를 갑니다. 스페인에는 어린 아동들 특히 3세 이하의 아동들에 대한 보육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 특히 3세 이하의 아동들에 대한 교육 체계에 대해서, 공공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민간 서비스가 주를 이루지요.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후 빨리 일터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페인의 사회당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런 것들에 진보가 있습니다. 사회당은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태어나서부터 3세까지의 유아 교육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부모들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교육을 받을 아동들의 권리입니다.

보육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직무입니다. 이러한 공동 책임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회사들에서의 서비스, 특별히 남성들 위주의 회사에서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ministry of economy and treasury는 주로 남성들이 주로 일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남성들이 주로 지배하는 영역에, 보육 시설과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남성들에게 보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기회를 주고 이들로 하여금 공동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성휴가에 더해 전환이 불가능한 부성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고용주들로 여성 고용에 대해 거부감을 덜 느끼게 하고, 양육이 공동 책임이라는 메시지는 심게 된다. 양육은 여성의 권리일 뿐 아니라 남성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용주들은 여성을 고용하는데 거부감을 덜 느낄 것이며 남성과 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 역시 적어질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성 휴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성 휴가는 4주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정한 공동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부성 휴가와 모성 휴가가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 보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복지 국가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 추가하고 싶은 요소는 바로 부양 가족에 대한 돌봄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돌봄이 여성들이 노동 시장, 유급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데 또 하나의 부정적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남성공무원들이 이 작업에 협력하게 된 것은 World Economic Forum의 권고를 들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을 설득할 때, 여성들을 생산 경제에 통합시키지 않을 때 잃어버릴 것들을 예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첫째, 일단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income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로, 정보가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면 눈먼 채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informed된 의사결정이 아니고, 자기가 내리는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좋은 의사 결정자들이 아닙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불확실성 가운데 의사결정을 만들어야 할 때, 더 많은 정보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증거들을 부인하는 것은 명확히 counter-productive합니다. 이는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의사결정은 눈먼 채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의사 결정은 informed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자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성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선택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가능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만일 정보가 있다면, 왜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불확실성은 사라집니다, 위험도 줄어듭니다.

또한 젠더이슈는 여성들의 것이 아니고, 젠더는 여성들의 것이 아닙니다. 젠더는 남성들과 여성들입니다. 젠더는 sex가 아닙니다. 두 개의 sexes가 있지요. 젠더 관계는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젠더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이런 자신들의 se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sex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견을 사용하는 대신에 hard data, 객관적인 데이터, figures를 사용하며 일하세요. 만약 우리가 의견을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 고유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hard data는 객관적입니다. Sex와 gender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 연구소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x variable만이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sexes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gender를 요소들의 한 variable로 사용하세요. 통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여성들의 일이라는 것으로부터 hard data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여성을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하나의 그룹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냥 인구의 절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다른 모든 그룹들의 일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성 인지 예산이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남성이나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figure를 증가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는 단지 예산을 다른 눈으로 보고, 의사 결정이 남녀 모두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Mr. Buenaventura (서비스와 예산 관리부장) "The Methodology of the Budgetary

Technique"

안달루시아 지역의 예산입니다. 이는 32 billion Euros인데요. 아침의 비교에서 보셨듯이, 여러분의 예산은 160 billion Euros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산이 한국 예산의 2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Tax structure와 tax collection process에서도 gender bias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지출에 대해서 더 앞서있으므로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인, 2월부터 6월까지, 준비 기간이 있는데, 이 때 coordination meeting이 regional ministries와 있다. 정부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므로 이 회의는 매우 중요하고, 이 coordination meeting에서 gender dimension analysis가 한 축을 이룹니다. 6월에 우리는 cabinet으로 보내는 첫 번째 예산 draft proposal을 작성합니다. 예산 협상에서 이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landmark가 됩니다. 이는 budget drafting process의 launching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역 장관들과 회의를 하고, 그들은 예산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회의에서 어떻게 각각의 지역 부처에서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협상 과정을 가집니다. 이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계속 됩니다. 마지막 예산은 10월 말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모든 예산 배분의 부서들과 부처들에 의한 분석을 우리가 젠더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말에, 이것은 해의 2달 전 (or 2년 전)입니다. 예산은 국회에 제출이 되고, 여기에서 정치적인 협상과 토의가 모든 국회 그룹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 예산이 수정되기도 하는데 보통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보내는 최종 보고서에 예산의 성별 영향을 추가적인 문건으로 제출한다. 또 다른 보고서인 financial economic report는 예산의 일반적인 정책을 언급합니다. 또한 program file을 받는데, 이는 지표와 젠더 목표를 포함한 세입과 세출 보고서입니다. 이 문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젠더 지표와 다른 지표들에 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문건은 안달루시아 지방정부의 인사에 관한 것으로 모든 고용원이 젠더로 분석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ario Benedicto가 말했듯이, (When we had all the answer, all the questions suddenly changed),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 예산이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인지 무엇이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자원인지, 또한 이를 젠더적 관점으로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variable을 고려하지요. 젠더적 측면은 이 예산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젠더 balanced 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반을 증가시키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regional ministry of economy and treasury로부터 보다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개발된 방법론은 우리가 자원에 덜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 작업을 하도록 해줍니다.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달성하는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돈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은 더 많은 설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납세자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고 구체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받은 돈이 이용 가능한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예산 restriction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따라야 할 Budget Stability Act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능력발휘가 요구된다. 우리는 젠더적 측면의 분석을 이용 가능한 자원에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효율과 평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가장 잘 공헌할 수 있는 영역의 모든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가 가진 돈이고, 성인지적 측면으로의 예산이 더 많은 돈을 다룬다는 것은 아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산을 관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용 가능한 예산을 가능한 최고의 방법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예산의 기본 특성들에 대한 설명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works line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gravity center를 자원으로 부터 예산으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첫 line은 기본적으로 controlling에 집중합니다. 각각의 management centers의 함의를 조정하기 위한 지출의 전략적 관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산 역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에 지출을 충분히 할 역량이 될 것인지에 대한 true idea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산의 관점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도록 하고, 그래서 매일의 작업에 제약을 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Factor number 5: 조직 학습.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직이 배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젠더 이슈의 전문가들을 조직에 보유하면서, 프로토콜과 분석이 젠더적 측면을 보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procedures를 개발해야 합니다.

Factor number 6: 또 하나의 목적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젠더적 관점은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예산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좀 더 많은 것들에 의문을 갖게 하고, 우리는 이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들에게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욱 평가할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Mr. Antonio Lozano Pena** (예산국장 겸 성인지 예산 위원회의 사무국장)

우리가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너무나 많은 이론이 있었고, 너무나 적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의 주된 결론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생산하는 것보다 이론을 만드는 게 언제나 더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심사숙고를 했는데, 이는 단순히, design of procedure 즉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실수와 성공을 통해 배우고, 빠르거나 느린 속도로 일을 해가며 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원칙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정부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중립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부의 사업은 여성과 남성에게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일은 이러한 차이와 결과가 불평등인지를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자원배분에서 어떠한 불평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차이와 불평등에서 관습화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우리가 불평등을 양산한 것은 아니지만, 성인지 예산으로 교정 작업을 통해서건, 협력하

는 긍정적인 행동을 창출함을 통해서건, 성 평등을 위한 작업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인지 예산을 통해 하나의 정책을 변화시키기는 것이 아니라 politics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접근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 평등이 매우 실질적으로 주류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젠더 이슈가 모든 영역을 관통하도록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한 기회입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젠더 시각을 통해 예산 작업이 향상되었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작업을 공동으로 하게 되면 정책품질이 향상되고, 절반이상의 소비자의 눈으로 점검하게 되면 당연히 정책품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적잖은 정책들이 타성에 젖어, 목적과 접근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 평등은 하나의 목적일 뿐 아니라, 주요한 자원을 보장하는 길이 됩니다. 즉 예산 작업이 평등을 위해 쓰일 뿐 아니라, 예산담당기관에게는 예산과정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안달루시아 정부는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성비 균형을 이룬 내각을 가졌고 또 정치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에 의해 예산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위원회를 성평등 부서 아래에 두지 않고 (regional) ministry of economy and treasury의 아래 두어, 예산담당국과 밀접히 관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이 성 불평등을 촉진하지 않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보고서는 investment list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재무부 차관이고 사무국장이 경제재무부 예산국장입니다. 다양한 부처로부터 대표들이 참석하며 성비 균형을 이룹니다. 또 지방정부 내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대표가 아닌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예산과정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또 작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임명된 presidency와 deputy presidency와는 다르게, 이 위원회의 사람들은 계속 이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높은 위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각 사업이 측정가능한 젠더 목표를 수립하도록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비롯하여 600명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600명의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들의 역량과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성차별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며 성인지 예산활동에서 이러한 human dimension(관련자들의 역량강화 훈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의 예산 캘린더를 설명드리면, 각 부서들은 매년 7월 첫 주 전에 budget proposal을 발행하여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 proposal에는 figures 외에도 특정부처가 가지는 젠더 관점의 statement가 있고 우리는 이를 분석합니다. 우리는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7월에서 10월 사이에 자원을 할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indicator, formulation of goals, references and analysis에서 gender balanced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성 평등을 위한 진보적 제안이 있는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정말로 젠더적 관점을 통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원회가 작성하는 성인지 예산보고서는 노르딕국가들의 형식에 time component를 넣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데, 이 보고서는 현실이 어떤지, 누가 그 변화를 관리하는지, 얼마나 많은 남성과 여성이 이 정부 조직 속에 있는지, 어떠한 자원과 action line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벌써 이 보고서를 세 번 발행했습니다. 예산은 the dissemination tool, a commitment tool and the progress tool in equality policies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의회로 보내질 때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성인지 예산활동이 갖는 중요성중의 하나는 이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성인지 예산을 좀 더 실행력있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였고, 그로부터 G+ 프로젝트(부서담당자들에 대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하여 G0, G1, G2, G+로 4개 수준으로 나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규모와 역량이 큰 기관과 사업에 대해서는 더 큰 요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체평가를 넘어 외부의 관점과 평가를 통합하기 위해 discussion forum이자 think tank, counseling group, support group로서 Synta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젠더 이슈에 대해 비전문가(대학, 금융계, 민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opinion leaders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비전문가의 시각(그들은 자신이 일하는 환경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최소한의 sensitiveness를 가지고만 있다면, 평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을 필요로 했고, 또한 우리 일에 힘을 실어주고 사회적 중요성을 높여줄 동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고서 하나의 발간이 아니라 정책,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 “예산 작성에 역동성을 주는 어떤 과정”을 양산하기를 것입니다. 즉 예산 작성에서 성별 분석을 제도화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성인지 예산이 이래야 한다는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꼽겠습니다. 첫째, 매우 강력한, 심지어 더 많이 강력한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의 방법론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실수를 하면 다시 돌아가 다른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분석하고, 증거를 찾고, commitment를 가지도록 합니다. 셋째, 내부의 역량과 요구를 갖고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기를 원한다면, 이는 예산의 solution에 통합되어야만 합니다.

▶ **Mr. Antonio Rodriguez (안달루시아 통계 연구소의 인구사회통계서비스 부장)**

젠더적 관점을 통계로 전환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통계가 어떻게 젠더와 예산을 통합하는 것을 돕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회와 차이를 드러내는 정보들은 늘어가고 있고, 이러한 통계적 정보들은 사회가 평등을 측정하도록 돕습니다.

안달루시아 통계연구소는 regional ministry of economy and treasury에 속해 있는 자율적인 기관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안달루시아 지방정부의 다양한 조직, 기관들의 통계적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달루시아 지역의 공식 통계의 조정 및 관리 기관입니다. 이 통계연구소는 안달루시아 Public Statistic Act에 의거, 19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통계계획은 4년의 중기기간 동안 이루어질 통계활동을 담는데, 예컨대 안달루시아 2007/2010 통계 계획은 안달루시아 지방 정부에 의해서 수행되는 모든 통계 작업을 cover합니다.

젠더 통계는 본격적으로는 5년 전에 시작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우리가 수행한 많은 통계 작업에서 이미 젠더로 나누기 시작했었습니다. 2005-/2006년 통계 계획이 젠더가 통계 활동의 한 부분으로 통합된 첫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을 띠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입한 모든 통계 수치가 젠더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는 첫 계획입니다.

젠더는 16개 theme area 중 하나입니다. 젠더는 시간사용, 여성 학대, 평등 정책 등과 같은 젠더 통계를 다루는 특별한 하나의 theme area였습니다. 여기에는 13개 활동이 포함되는데, 이는 이 기간들 이후에도, 그들의 measurement를 통해 이러한 젠더 장벽을 극복하고 없애기 위해, 여전히 우리에게 체계적이고, 양립 가능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의해 다루어져야 할 많은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통계 계획이 최근 2007/2010년 계획에서 시행되는데 이는 2차 시나리오, 젠더 통계의 통합의 further step입니다.

젠더 통계는 더 이상 하나의 theme area가 아닙니다. 이는 통계학에서 주류화되었습니다. 안달루시아 지방 정부에 의해서 수행되는 모든 공식 통계는 젠더적 관점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이 계획은 유럽의 직접적인, 혹은 중앙 정부의 혹은 지방 정부의 regulation에 의해서 설립된 성 차별을 없애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답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는 성인지 예산의 drafting process에서의 향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를 향상 시키고, 정치적 우선 순위의 위계 관계를 설립할 것이며, 기회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법적 체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의 법은 the National Act for Effectiv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이고, 또 하나는 the Andalusian Act to Promote Equality of Women and Men입니다. 이 통합된 Effective Equality Act는 더 많은 정보, 젠더에 의한 더 많은 분리, 남성과 여성간의 다른 면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보들에 대한 필요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물성적인 통계 시스템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공 정책과 성별 영향 분석을 위한 일련의 도구들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 평등에의 안달루시아 정부의 통계의 완성을 위해서, 새로운 통계 계획에서, 젠더는 더 이상 specific area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주류화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젠더 통계에서부터, 전체 통계 시스템에의 젠더적 관점의 통합으로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하지만, 통계 산출에서의 이러한 굉장한 변화는 우리가 당면한 일련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sex에 의해 분리된 개인에의 모든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variable이 분석되어야 하고, 젠더에 의해서 분리되어 나타나야 하며, 당신이 언제 statistic variable을 하든, 어떤 통계든 분류되는 variable 중 하나는 gender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젠더적 관점이 통계적 작업에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은 연관된 이슈들을 identify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data가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된다고 확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적 체계이고, 이는 안달루시아 통계 계획에 직접적으

로 translate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듯이, 2007/2010년 계획에서, 젠더는 element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territory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젠더는 주류화되었을 뿐 아니라, 통계 시스템의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젠더적 관점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모든 통계 운영에 통합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운용되기 위해서, 일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법의 전략이기도한 세 개의 특정 목표들을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젠더 관계의 향상과 젠더 역할 모두에서의 진보를 위한 design of specific scale입니다. 이는 사회적 행동, perception 그리고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을 없애는 것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지표들을 양산하기 위함이며, 현존하는 지표들을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젠더에 기반한 불평등을 눈에 보이게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고 이것이 가장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예산 국장님에 의해서도 반복되었던 것인데요, 통계 활동의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지와 다른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들이 젠더적 관점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쉬운 것이 아니란 점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안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이러한 자원들에 젠더적 관점을 충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정보들을 젠더로 분리하는 mandatory character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부처에서의 통계적 질문지를 향상시킬 필요에 강조점을 둡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젠더에 의한 분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다른 정보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통계 계획에 게재되어 있는, general specific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젠더 이슈가 통계 연구소에 의해서 수행되는 actions들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통계 연구소는 젠더 이슈에 대해서 연구하고 주류화시키기 위한 매우 특정한 작업반(task force)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업반은 정기 회의라는 면에서 현재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반은 모든 지역 부처들의 통계 연구소의 대표들과 또한, 안달루시아 statistical authority의 회원들 그리고 이 분야의 대학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특별 작업반에는 우리는 세비야 대학으로부터 온 전문가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반의 주요한 목적은 젠더적 관점을 공식 통계에 통합시키기 위한 그리고, 어떠한 통계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 시스템의 능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은 작업반의 직무의 시작점으로부터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에 더해 통계적 결과의 차별을 분석하고, 여러 차이들을 찾아내며, improvement를 위한 제안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젠더적 접근을 통합시키기 위한 some regulation의 변화를 요하는 행정적 정보원들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registers와 관련하여, 12-13개의 rules과 regulations을 발견했고, 우리는 regional decree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정부의 register의 실행이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통합시키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젠더적 관점이 통계활동에 통합되기 위해서, 2009년 동안 실행될 통계적 작업 안에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중요한 다른 점은 성별 영향과 예산에의 참여입니다. Gender impact commission, the institute of statistic은 이러한 젠더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public

statistics을 달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연구소와 gender impact commission은 진정한 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산출하는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과 EU와 비교하여 안달루시아의 현재 evaluative situation의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통계연구소에 의해서 산출된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또한 corrective action을 시작하기 위한 남녀의 현존하는 불평등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예산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의견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보여주는 chart, 예를 들면 노동 시장, 고용활동 등을 평가하는 것 등이 논쟁을 위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약 7년 전인 2001년에, 통계연구소는 Statistical Year Book of Analucia와 Gender Perspective and Andalucian Basic Data, Gender Perspective를 발간했습니다. 다른 한편, 남성과 여성의 use of time이라는 측면과, 그들의 가사 노동의 배분이라는 면에서, 우리 연구소의 통계적 작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행물들은 쉽고 간단한 작업이자, 체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젠더에 의해 분리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스페인에서는 매우 선구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을 증명하도록 돕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젠더 관점을 통합시킨 첫 시도였던 이 두 간행물에 우리는 매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이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연보와 정보들에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간행물들이 미래에는 더 이상 필요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또 말하고 싶은 점은, 우리는 단지, 젠더에 의해 분리된 정보의 체계적인 산출이라는 면 말고도, 이에 더해서는 다양한 면과, 다양한 주제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 및 차이를 낳는 변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family network와 use of time을 연구했고, 이는 노동 시장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Use of tim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house production accounts를 연구 중입니다.

(Mrs. Pilar Lobato의 보충설명) 이 부처에 의해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안달루시아 통계 연구소는 이 통계 연구소로 transfer된 프로젝트인 남성과 여성의 내재적인 노동 비용에 대한 연구에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여성이 그들이 취하는 추가적인 휴가 때문에 labor cost라는 면에서 더 비싸다는 전통적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첫 번째 작업 중 하나는 다른 연구 기관, 대학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모성 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를 취하는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labor cost가 싼데, 이는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그들의 직업을 더 자주 바꿈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발생하는 replacement cost가 계산되지 않았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여성들은 모성 휴가를 취함으로 비싼데, 남성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자주 바꿈으로 여성들보다 더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노동 시장의 cost를 분석할 때, 이제 계산되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replacement라는 다른 분류 기준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우리에게 일련의 정보, 특별히 민간 기업과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노동 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고용하는데 존재하는 stereotyp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안달루시아 통계 연구소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이며, 이는 이루어져야 했던 그런 종류의 연구입니다. 이는 곧 출간될 예정이며, 차후 후속 연구가 고려중입니다.



<그림> 스페인 안달루시아 정부관료들과의 Round Table

6. 참가자 역할

- 가. 방문기관 및 방문인사 선정, 섭외
- 나. 기관방문과 전문가 면담시 논의
- 다. 성인지 예산 제도화에 대한 양국간 라운드테이블 개최
- 라. 기관 및 전문가와 네트워킹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마. 관련자료 문의 및 수집
- 바. 한국의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홍보

7. 방문 성과

가. 스페인 연방정부 및 바스크, 안달루시아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 파악

인터넷과 영어로 번역된 공식 간행물을 통해서만 접하기 어려운 해외 성인지 예산 현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음. 스페인의 경우 영문자료가 부족하여 인쇄자료가 부족하던 중 직접 방문을 통해 그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음. 또한 바스크 지역정부와 안달루시아 지역정부를 연쇄적으로 방문·논의함으로써 시행연도, 법제등 인프라 구축정도, 시행방식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하였음.

특히 안달루시아 주정부 부지사이자 경제재무부 장관·차관을 접견하고, 관료들과의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이 거브넨스에 더 많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주고, 공공 정책과 지출에 더 많은 효과성을 가져다준다는 신념, 열정을 배울 수 있었고²⁾ 이것이 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성공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음. 또한 성인지 예산이 더 많은 평등과 더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다준다는 식의 소박하며 명쾌한 설득구조에 대해 생각하게 됨.

나. 자료 수집

- ▶ *Gender Impact Evaluation Report from the Draft Budget for the Autonomous Region of Andalusia for 2008*, JUNTA DE ANDALUUDSIA, 스페인 안달루시아 경제재정부
- ▶ *Andalusia Basic Data 2007*, 경제재정부 산하 통계국
- ▶ *G+ Materiales del Proyecto G+*, 경제재정부
- ▶ *The Methodology of the Budgetary Technique of the Autonomous Government of Andalusia* (Dr. Antonio V. Lozano Pena)
- ▶ *Equality is not a Utopia. New Frontiers: Challenges and Changes Plenary lectures*, 제 10차 세계여성학대회 전체회의 발제문 모음
- ▶ *Equality is not a Utopia*.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 프로그램집

다. 한국의 성인지 예산 및 본원 연구에 대한 홍보

출장 전 전년도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개정된 영문 홍보자료를 작성하였고, 방문국의 면담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면서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 및 본원의 연구를 소개하였음. 면담자들은 한국의 여건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였음.

라. 해외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출장자들이 방문한 기관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방문국 내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임. 향후 본원에서의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이들은 향후에도 우리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기로 하였으며, 연구진은 연구기간 동안 이러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 스페인 재정연구소 Dr. Maria Pazos와는 작년 심포지엄에서의 만남을 바탕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성평등 및 성인지 예산관련한 스페인의 최근 진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화 전략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함으로써 유대의 깊이를 더하였음.
- 안달루시아 지역정부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성인지 예산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접할 수 있었고 추후 심층연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올해 국제심포지엄에 초청하기로 함.
- 10차 세계여성학대회에 참가하면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여성학자인 영국의 Sylvia Walby교수와

2) 경제재무부 예산국장은 영국의 처칠경의 “성공이란 열정의 손실 없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넘어가는 능력이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들 관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 어떤 영역에서는 지쳐 나가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계속 push할 것이라고 하였다.

네덜란드의 Mieke Verloo교수를 만나 본과제 및 본원과의 지속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의지를 다짐.

8. 관련기관 및 인사 리스트

이름	소속 및 연락처
Dr. Maria Pazos Moran	Director of Research,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Ministry of Finance, Spain 주소: Instituto de Estudios Fiscales, Cardenal Herrera Oria 378, 28035 Madrid Email: maria.pazos@ief.minhac.es Tel: (+34) 91 339 8831 Mobile: (+34) 647.476310
Mrs. Priya Alyarez	Director, Infopolis 2000, S.L (바스크지방 성인지 예산 전문가) Tel: +34944476725 Email: papriya@gmail.com
Mrs. Pilar Lobato	안달루시아 Advisor to the Vice-President Consejeria of Economia y Hacienda (Ministry of Economy and Treasury: the Public branch that conducts gender budgeting in Andalusia) Tfno: 955064581/ corp: 364581 677905248/ corp: 364581 Email: pilar.lobato@juntadeandalucia.es
Dr. Antonio Lozano	안달루시아 General Director of the Budgeting Branch
Mr. B.A. Diaz	안달루시아 정책평가·진단국 부장
Mr. Juan A. H. Rodriguez	안달루시아 통계국 인구사회통계부장